

제 4 과: 요한계시록 11 장

(요한계시록을 10 주 안에 마치기 위해 몇몇 장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기숙사 방에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무언가 작은 소음이라도 항상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기도: 하나님,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영상들을 접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고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잠시의 고통임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 장 1-14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원합니다.

툼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괴물’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 곳,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큰 도성”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요한은 이후의 여러 장에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텐데, 거기서 우리는 당시 로마에 의해 구현된 이교도 제국의 권력이 ‘괴물’이고, 로마 자신, 혹은 어쩌면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 세계가 ‘도성’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요한이 독자들에게 기필코 각인시키겠다고 마음먹은 내용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이 신실한 예언적 증언을 담당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도리어 이 고난과 죽음 자체가 교회가 경배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처럼 궁극적인 선지자의 표징이 되어, 세상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흘 반 동안(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곱의 반의 상징을 접한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승리를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돌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숨이 죽은 시신들 속으로 들어가는 에스겔 37 장의 환상이 실현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는 다니엘 7 장의 환상도 실현될 것이다. 교회의 순교 이후 이루어지는 교회의 정당성 입증은 선지자들의 증언을 완성할 것이다.

그 결과는 이것을 지켜보던 세상이 마침내 회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13 절 마지막의 강렬한 표현의 의미다. 계시록을 비롯한 다른 성경책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시적이거나 마지못한 인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참회하며 돌아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앙이 실패한 그곳에서 교회의 순교적 증언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방이 와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15 절의 내용이다.

따라서 가장 난해한 계시록의 가장 난해한 이 본문은, 요한이 이 책을 쓰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 가운데 하나임이 밝혀진다. 어린양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냈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자 온갖 종류의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 나팔 소리가 울렸다. 온갖 종류의 공포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제 두루마리는 요한에게 건네졌고,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는) 상징적 행동과 (두 증인의) 비유적 이야기를 통해 예언한다. 그리고 4 장과 5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13 절 상징의 강력한 효과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그곳에서 의인 열 명만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 주셨을 것이다(창 18:32). 하지만 이제 악한 도성의 10분의 1 만 무너지고 10분의 9 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이교도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 명만 남았다. 그런데 이제 7000 명만 죽고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이전 장들의 연기와 불 밖으로 한 환상이 등장한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반역과 부패를 두고 슬퍼하시지만 그것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로 결단하시고, 어린양의 신실한 죽음을 통해, 그리고 이제 어린양의 예언자 제자들의 신실한 죽음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 환상이다.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계시록 전반부를 마감하는 11 장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경축으로 향하는 길이 뚜렷이 나타난다.

함께 토론해 볼 주제:

톰 라이트는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1. 어떤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2.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극복하고 저항해 나가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십니까? 둘 다입니까?

요한계시록 11 장 15-19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곡에서 이 부분을 들어 보거나 불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리!”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 해보려고 합니다.

톱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계시록의 주제는 성경의 주요 원형(다니엘서)과 마찬가지로, 온통 하나님 나라다. 내 경험상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오해 받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단지 ‘하늘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해 왔다. 이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땅’이라 불리는 이 너저분한 곳과는 상반된) ‘하늘’이라고 불리는 곳의 책임을 맡으셨고, 인생의 주된 목적은 ‘당신이 죽을 때 하늘로 간다’는 뜻에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부분의 교회에게 계시록이 말 그대로 닫힌 책이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이 이런 통속적 견해와 강력하고 극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하늘’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분의 전체 목적은 온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인간의 반역에 떠밀려 비참하게 궤도를 벗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항상 의도하셨던 그런 곳이 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세대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네 복음서의 메시지다. 이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마태가 ‘하늘 나라’(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로 적는다)라는 어구를 사용할 때 독자들은 ‘하늘에 가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며, 이것이 바로 마태가, 따라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라고 손쉽게 가정했다는 데 부분적인 요인이 있다.

하지만 여기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도 명백히 정치적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지금의 제단과 그 주변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비록 잘못된 본문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 이것은 현재의 개인적 영성이나 도피주의자의 미래적 ‘구원’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맡으셨고 그분의 통치 방식은 ‘메시아’ 어린양에 의해 세워졌다는 소식으로 세상 권력에 맞서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너무 강력해서 환영 받지 못하는(애석하게도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기 일쑤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 바로 ‘고난 받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는 이 내용을 입증했다. 교회가 가장 급속히 확장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고문과 사형으로 이 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처음 3세기였다. 위대한 초기 교사 중 한 사람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다. 역사는 이 점을 반복해 입증했다 (103-104).

이제 남은 것은 “땅의 파괴자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의미다. 흔히 심판은 사람이 정말 즐기고 싶은 것을 좌절시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의 심판이다. 4장과 5장의 환상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목적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반물질, 반창조, 반생명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죽을 차례다(105).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아득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며 모든 어둠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대학교 안에서 “회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왕의 왕 되시며 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회복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톰 라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반창조적인, 죽음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